

광주 무등초, '헌터걸' 저자 김혜정 동화작가와의 만남 성료

'책으로 여는 미래 북(BOOK)·돌·움 교실' 첫 스타트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 지원하는 독서 프로그램 '제1회 블루픽션상' 수상자 김혜정 동화작가와의 만남

무등초가 지난 11일 강당에서 '책으로 여는 미래 북(BOOK)·돌·움 교실' 프로그램의 첫 스타트로 '헌터걸' 저자 김혜정 동화작가를 초대해 5학년 학생들과의 만남을 성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책으로 여는 미래 북(BOOK)·돌·움 교실'은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며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는 무등초의 아심찬 독서 프로그램이다.

무등초는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문학적 감수성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1회 블루픽션상' 수상자인 김혜정 동화작가와의 만남을 추진했다.

김혜정 동화작가와의 만남은 무등초 5학년 학생들 및 교사, 학부모독서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실시됐다.

무등초는 1학기 때부터 학생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김혜정 동화작가의 작품 '헌터걸'을 온 작품으로 선정해 바 있다. 학생들은 이 작품을 완독하면서 평소 김혜정 동화작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번 김혜정 작가와 만남을 통해 작가는 직업 및 책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가 됐다.

무등초는 '책으로 여는 미래 북(BOOK)·돌·움 교실'의 일환으로 ▲자발적인 학생 응모·추첨을 통한 월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학생들의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학년군별 학생 수준·흥미를 고려한 독서교육 행사 ▲'북(BOOK)·돌·움' 콘서트 ▲'북(BOOK)·돌·움' 캠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등초 5학년 한 학생은 "김혜정 동화작가님과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 신기했고, '헌터걸'을 또 읽어보고 싶다"며 "책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통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도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등초 5학년 한 담임교사는 "김혜정 동화작가와의 만남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이 문학적 감수성과 종합적 사고력 및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등초 박동원 교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불어 넣어주는 김혜정 동화작가님께 감사하다"며 "우리 무등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은 후 서평쓰기, 대화하기,



독서토론과 같이 생각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북(BOOK)·돌·움' 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구례공공도서관,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구례공공도서관은 지리적, 환경적 특성으로 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3기관(나눔플러스·두드림·키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 어린이에게 다양한 책 그리고 도서관과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 습관 적성기에 올바른 독서에 대해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올 한 해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의 마음을 힐링해주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수업은 전문 지도 강사를 주1회 파견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어린이들의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동화구연 및 창의적 체험활동, 다문화 이해 교육, 주제별 독후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총 30회 운영하였으며 366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담당교사는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이들이 그림책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례공공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유대 강화에 힘쓰겠다"며 "어린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통해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교육청, '어린이 작가들의 그림책 출판기념회' 성료

직접 스토리 기획·구상·원고·채색 등 자신만의 그림책 출판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도 작가입니다,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의 결실인 어린이 작가들의 그림책 출판기념회를 해당 학교에서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4개교 40명의 학생들이 3개월 동안 직접 스토리를 기획, 구상, 원고, 채색 등의 과정을 거쳐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신만의 그림책을 출판까지

하는 기쁨을 주었다. 출판기념회는 어린이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그림책을 녹음하여 제작한 그림책 동영상 상영, 소감 발표, 책 소개 등으로 꾸며졌다.

출판기념회에 참여했던 어린이 작가들은 "저는 작가가 꿈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그림책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스토리를 만들고 그림 그리는 작

업이 힘들긴 했지만 제가 만든 그림책을 보니 뿌듯해요." 등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최원식 교육장은 "그림책 출판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니 우리 화순 지역에서 멋진 작가가 많이 탄생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강진교육청,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과 지원에 힘 모아

문화다양성 교육과 지원 위한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재현)에서는 9월 2021학년도 강진 다문화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강진군청, 강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스타트강진글로벌아동센터, 학교급 대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1학년도 강진 특성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과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강진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2021학년도 지역 다문화 특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유관 기관들의 운영 목표 및 방향 등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공동체로서 협력 및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관들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화우 및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관간 소통 부족으로 인해 학교 현장과의 오해 및 마찰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학교현장 친화적인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또한 각 기관의 사업계획을 상호 검토하고 중복사업, 강화할 사업, 소홀히 된 사업 등을 함께 정리하였다.



그 결과, 분기별 1회의 네트워크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유관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고를 통해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하자는 공통된 의견을 보았다.

강진=김영일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